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방식 그대로 (첨가물 0% 수작업 100%)
제주고소리술
오메기맑은술
제주술익는집
역사적가치가 크고 술맛이 좋다하여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282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1년 1월 13일 수요일(음력 12월 1일)

농작물 한파·폭설 피해 가시화 '초비상'

월동무는 40% 이상 냉해 미수확 노지감귤 등 피해 도, 19일까지 상황 파악… 지원방안 신속 마련키로

지난주부터 불어닥친 한파와 폭설로 제주 월동채소 등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직 수확하지 못한 노지감귤에 냉해가 발생하고, 월동채소 등의 언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농작물 사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진 한파와 폭설로 월동무와 겨울 채소 등의 언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차 피해 집계 결과 도내 월동무와 겨울 채소 등의 재배면적 2만5770ha 중 7144ha에서 월동무 등 채소 및 일부 노지감귤에 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동무 경우에는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 전체 면적의 40% 이상 냉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브로콜리와 콜라비도 냉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에서 수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노지감귤도 비상이다. 지난주말 이어진 폭설로 도내 노지 감귤원에는 나무에 달린 감귤 일부가 얼거나, 마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키위는 궤양병, 밭작물은 잎 끝마름 현상, 시설과채류는 냉해, 곰팡이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13일부터 평년 기온이 회복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농작물 피해 증상이 나타나면서 한파·폭설에 따른 제주지역의 농작물의 대략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도 농업기술원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감귤류는 하우스 및 노지감귤 나무에 쌓인 눈 제거, 수세회복 엽면시비, 미수확 감귤 상품성이 있는 과실 선별 수확, 저장창고 환기 및 부패과 철저한 선별 후 출하 등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도는 최근 이어진 폭설·한파 피해 농가의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 지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접수를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재난지원금, 재해보험금 지급 등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지역별로 표선 32.6㎝, 성산 19.9㎝, 강정 17.7㎝, 제주 9.2㎝, 서귀포 4.0㎝의 많은 눈이 쌓였다. 또 기상관측장비가 있는 농경지 32개소 중 19곳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후 70시간 이상 영하권의 기온이 유지된 것으로 관측되면서 제주지역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12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한 무밭이 폭설로 인해 수확을 하지 못하면서 무가 눈속에 파묻힌채로 있어 냉해가 우려되고 있다. 강희만기자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정기인사 예고

15일자 570~580명선 단행 직급 승진자만 158명 될듯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오는 15일자로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13일 오후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국장급 인사와 함께 대규모 '승진잔치'가 예상되며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 규모는 570~580명 선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직급 승진 대상자는 158명(4급 16명, 5급 33명, 6급 37명, 7급 47명, 8급 15명, 6급 이하 소수직렬통합심사 1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확한 인사 내용 및 승진자 규모 등은 인사예고일인 13일 열리는 제주도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도는 앞서 지난 4일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과 문경진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제주시 부시장에 누가 자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선 현직 공무원 6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안동우 시장이 제주시 동부출신인 점을 감안해 부시장에는 서부출신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의견들이 도정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내부 승진 인사에 대한 의견도 있다.

도청 국장급 인사도 관심사다.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등으로 고위직 자리도 상당수 교체되기 때문이다. 교체 대상은 도시건설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교통항공국장, 해양수산국장, 인재개발원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등이다. 아울러 과장급에서도 공로연수 등으로 공석이 생기면서 연쇄 승진과 함께 자리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전지훈련 봇물 예고… 방역당국 '긴장'

182개팀 3700여명 예정… 도,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

올 겨울 제주지역 전지훈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총 182개팀 3718명이다. 12일 현재 78개팀 1796명이 입도해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며, 2월까지 추가로 52개팀 1527명이 입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인원 중 코로나19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등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지난해말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제주지역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지훈련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오는 18일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전원은 입도 전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등팀의 경우는 학교장과 학부모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요구서류 미제출 팀 등은 훈련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체류 기간 동안 전지훈련 선수단들이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동계 전지훈련 운영지침 및 방역메뉴얼을 마련해 훈련팀이 체류기간동안 유의해야 할 주요 방역 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도 전 선수단에 훈련계획과 자체 방역계획이 포함된 훈련신청서와 건강 확인서,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태윤기자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산자부 발표, 신고금액 3억6300만 달러로 전년비 12.9% 줄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신고 건수는 66건, 신고금액은 3억6300만 달러다. 이는 2019년 85건·4억1700만 달러 대비 각각 22.4%·12.9% 감소한 것이지만, 2018년 70건·2억7800만 달러보다는 8500만 달러 정도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외국 자본 유입 감소로 도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금액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도착금액을 보면 2018년 33건·3억5700만 달러, 2019년 34건·3억1400만 달러, 2020년 19건·3억9600만 달러 등이다. 이는 작년 개장한 제주드림타워 영향으로 보인다.

롯데관광개발은 중국 녹지그룹과 함께 드림타워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11월 공동 시행사인 녹지그룹에 롯데관광개발 소유 면적에 대한 사업비 3500억원을 정산했다. 정산한 사업비는 외국인 직접투자로 분류되면서 제주지역 도착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96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신고금액 1064건·138억3200만 달러이며, 도착금액은 337건·47억5200만 달러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